

호남석유화학, 중소기업 구매지원 10억원 출연

호남석유화학은 2008년 말까지 10억원을 출연해 자사와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한다.

신용보증기금은 12월16일 마포구 본점에서 호남석유화학과 <대·중·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협약>을 체결했다.

2008년 들어 대기업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출연금은 중소기업들이 호남석유화학으로부터 원자재를 외상 구입할 때 신용을 보증하는데 사용된다.

상생협력을 위한 출연협약은 보증비율이 15배, 원자재 외상구매기간이 45일로 8차례로 제한되며, 연평균 1200억원 상당의 원자재 구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
<화학저널 2008/12/17>